

# 한 작가 집중조명한 단행본는다

‘태백산맥론’ 묶은 책도 ... 잡지선 다투어 기획특집

문학사적 관심의 표적이 되거나, 혹은 당대의 현장비평적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특정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한데 모은 단행본들이 최근들어 잇따라 선보이면서 독자와 평단의 각별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첫째 광범한 관심과 논의의 표적이 될 만한 우수한 작가 및 작품의 존재, 둘째 한편의 책으로 정리해 묶을 만큼 질·양 면에서 충분한 전문가집단의 연구성과, 셋째 그런 논의들을 단행본으로 수용하고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된 출판계의 역량 등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우리 문학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대·심화시키는 바람직한 시도로 환영받고 있다.

한편, 그동안 되도록 많은 작가의 많은 글을 실는 경향을 길게 보여왔던 각종 문학잡지들도 이즈음 작가론 특집의 경쟁적인 게재를 통해 독자층의 폭넓은 관심을 불러모으며 새로운 형식의 문학지 편집체제를 굳혀나가고 있다.

이중 가장 큰 주목을 끌고 있는 책이 ‘태백산맥의 소설적 성과와 통일문학의 전망’이란 부제를 달고 나온 「문학과 역사와 인간」(한길사). 조정래의 「태백산맥」 한 작품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작품론을 한권으로 묶었다는 점에서 우리 출판사상 초유의 시도로 평가되는데, 게다가 “필자별로 특정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태백산맥」에 대하여 뭐든 쓰기로 하고 이뤄진” 新稿들로 한편 분량의 단행본을 엮었다는 데서도 이 책의 의의는 높이 평가된다. 「태백산맥」 자체가 문학적으로나 문화외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대작’ 인만큼 이 「문학과 역사와 인간」은 어쩌면 「태백산맥」에 대

한 지극히 온당한 대접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껏 이런 류의 책을 경험하지 못했던 입장에선 비교적 신선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이창동·하재봉·남진우·이용범·조정래가 참여한 권두좌담과, 고은의 「문학과 역사에 대한 한 고찰」을 비롯한 김윤식·권영민·이동하·김철·정호웅 등의 연구논문을 통해 「태백산맥」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비평’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태백산맥」에 비금할 정도로 역시 높은 관심과 치열한 논의의 표적이 되었던, 그러나 「태백산맥」의 세계와는 비교적 대척적인 거리에 서는 작품들로 우리 당대를 풍미하고 있는 작가 이문열에 대한 논의를 한데 모은 「이문열론」(삼인행)도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경우는 기왕에 발표됐던 논의들을 추려 한편에 모았는데, 작가 자신의 산문(「귀향을 위한 만가」)과 비평가의 편지(권성우)를 앞머리에 내세운 다음 작가론 및 작품론들을 배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작가론으로는 이동하의 「낭만적 상상력의 세계인식」을 비롯한 한 9편의 논문과 작가대담을, 그리고 작품론으로는 「사람의 아들」 「젊은날의 초상」 「황제를 위하여」 「영웅시대」 「변경」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 등 작가의 대표작들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를 싣고 그 각각의 말미에 일일이 출처를 밝혔다.

최근 이 두 책이 독자층의 주목을 끌고 있긴 하나 한 작가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작가론을 모은 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예컨대, 1977년부터 문학과지성사가 펴낸 ‘작가론총서’의 경우가 본격적인 단행본 작가

특정작가나 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논의를 한데 묶은 단행본 출간이 점차 활기의 조짐을 띠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문학지들도 매호 작가론 특집을 경쟁적으로 수록하고 있어 주목을 끄는데, 이는 곧 우리 문학연구의 폭과 깊이가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러 있는가를 반영하는 작업들로 받아들여진다.

론 출간의 선두라 할 만하다.

몇몇 외국작가들과 함께 이 총서를 통해 선을 보인 작가론으로 현재까지 나와있는 것은 김현이 편집한 「이광수」를 비롯해 「염상섭」(김윤식), 「김소월」(신동욱), 「이상」(김용직), 「채만식」(김윤식) 등 모두 5종. 4·6편의 소책자 형태 속에 작가론과 작품론, 작품의 일부, 연표 및 연구문헌목록 등을 싣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느정도는 문학사적 평가가 내려진 작가들이 대상이 되어선지 그 논의들이 대부분 ‘학문적’ 수준에서 다루어졌다. “한 연구자가 책임편집하는 체제로서 전문적인 연구자로부터 일반독자에 이르기까지 해당 작가의 문학을 폭넓게 조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다”는 것이 이 작가론총서의 기획의도.

김병익, 김현 두 평론가가 책임편집을 맡고, 지금은 없어진 도서출판 은애에서 1979년에 펴냈던 ‘우리시대의 작가연구총서’도 비교적 인상적이었던 작가론 출판의 한 경우이다. 권두에 책임편집자의 ‘ 전반적 검토’가 수록된 것 이외에는 문학과지성사의 ‘작가론총서’와 거의 유사한 구성을 보이는 이 시리즈는, 그러나 短命으로 그친 것이 흠. 애초에는 최인훈·이청준·윤홍길·고은·정현중·이호철·서정인·황석영·황동규·이성부 등의 작가론이 기획됐지만 이중 실제로 출판된 것은 ‘최인훈」 「이청준」 「윤홍길」 「정현중」 등 4권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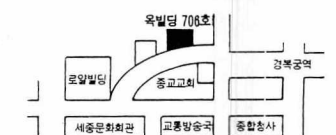
## “한솔과 손잡으시면 편집자 10명을 얻는 셈입니다!”

- ◆ 제작 대행 : ① 일손이 달리신다구요? 대신 뛰어 드리겠습니다.  
② 원고가 있으시다구요?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 CONVERSION (변환) : PC로 입력한 디스켓만 가져오시면 편집상태인 교정 → 인화 → 필름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 ◆ 원고 은행 : 출판 원고접수, 출판 원고 지원해 드립니다.



### 한솔기획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  
TEL : 735-4 997 FAX : 739-8 719



# “작은 글에도 정성 담은 책 만들 터”

## 웅진출판사 새 사장된 백석기씨

웅진출판사가 창업 10년만에 새 대표이사를 맞았다. 그동안 겸임으로 있었던 윤석금씨가 회장으로 물러남에 따라 지난 1월3일 전문경영인으로 白錫基(55)씨가 신임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

신임 백석기사장은 작년까지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냈던 군인출신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줄곧 군에서만 생활, 출판과는 거리가 있는 경력을 지닌 인물이다. 하지만 출판사 전문경영인으로 취임한 지 두달 여만에 털어놓는 그의 경영방침은 명료하고 확고했다.

“저는 기업의 전체 경영에만 힘쓸 뿐 편집은 일체 편집진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책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 주기만을 강조할 따름이죠. 특히나 우리 책들은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것이니만큼 사소한 글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할 뿐입니다.”

서울대 경영대학 과정을 이수하면서 윤석금회장과 인연을 맺기 전까지는 웅진출판사의 이름조차 몰랐다는 백사장은 막상 취임해서 보니 이제까지 만들어왔던 웅진의 책들이 워낙 깔끔하고 내용도 알차 자신은 그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에만 마음을 쏟겠다는 생각이다.

처음엔 오랜 군인생활 끝에 하는 사회생활이라 적잖이 우려했는데, 짧은 기간이나마 ‘어린이’를 위한 책을 만드는 출판업이 깨끗한 문화사업이라는 점에서 점점 더 매력을 느낄 수 있겠다는.



백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선보일 책은 우리나라 동·식물의 생태를 알기 쉽게 꾸민 「한국의 상태」. 직접 현지촬영 등 제작기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책이라 아직도 1, 2년 후에나 어린 독자들과 만나게 될 이 전집은 제작비만도 10억을 예상하고 있다는 귀띔이다. 구체적인 편집방향에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백사장은 현재 출판사업을 맡은 웅진미디어·웅진교과서와 함께 조직을 재정비해서 잡지, 교육용PC와 연결되는 오디오·비디오북 등 첨단출판 개발에도 관심을 보였다.

— 김지원기자

이밖의 단발형 작가론 출판도 간간이 시도돼 왔는데, 가령 동화출판공사의 서정주론 출판을 비롯해 자유문학사의 오상순론, 일지사의 조병화론. 한양문학회의 박목월론, 만해사상연구회의 한용운론, 종로서적의 김말봉론, 세계의 김지하론, 온누리의 신동엽론 등을 손에 꼽을 만하다. 그러나 이들중의 어떤 것들은 한 작가를 기리기 위한 추모사업의 수준에 그쳐 본격적인 작가론 출판으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정작가를 집중조명하는 경향은 단행본 뿐 아니라 잡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작가세계」 「현대시세계」 「문학정신」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들로서, 이중에서도 특히 창간호에서부터 작가론 특집을 싣고 있는 「작가세계」가 이같은 경향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가세계」는 매호 한 작가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작가론과 작품론, 문학적 연대기, 화보, 자료, 대표작 및 신작 등을 책 한권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면에 집중적으로 수록함으로써 독자들의 폭넓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문학에 비교적 전문적인 관심을 가진 이들에겐 단행본이나 다름없는 보관용 자료로도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다루어진 작가들은 이문열, 김지하, 박영한, 최인훈, 이계하, 정현종, 조세희, 박완서 등 모두 8명으로 대상작가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까다롭다는 것이 잡지 사측의 설명인데, 그러나 대중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작가들을 고루 등장시켰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현대시세계」나 「문학정신」의 경우 역시, 「작가세계」의 그것처럼 ‘파격적’이지는 않지

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대시세계」는 ‘시인연구’를 통해, 그리고 「문학정신」은 ‘말·삶·글’을 통해 매호 특정작가 한 사람씩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 91년 봄호 및 3월호에는 각각 최승자와 오규원이 대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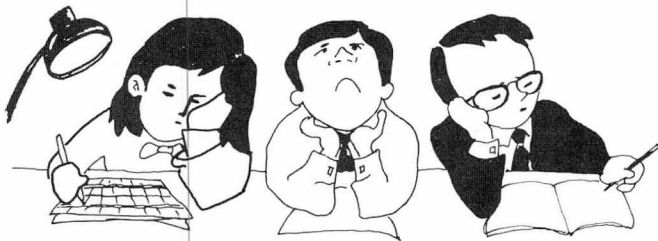
특정작가에 대한 이같은 집중조명은 “그것이 단행본 형태가 되면 문학지 기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든 일단은 바람직하다”는 것이 문학평론가 박덕규씨의 지적이다. 그러나, 그는 이어 이같은 움직임이 보다 다양하게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직은 작가의 이름을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테두리가 그리 넓지 않기에 중복되거나 단편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문체론이나 수사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인데,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연구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좋은 작가론집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문학생과 대중성을 골고루 확보한 작가의 출현과, 그런 작가를 발견해내는 평론가나 출판사의 노력이 잘 조화될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작가 개인의 이름을 딴 학회가 부지기수인 외국의 경우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춘원학’이나 ‘소월학’, 혹은 ‘만해학’이라 이를 만큼 특정작가에 대한 연구역량이 충분히 축적된다면, 잘 만들어진 작가론 및 작품론 앤솔러지의 출현은 그리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닌 듯싶다.

〈임종기〉

#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91 춘계언론 취업반 모집요강**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 수강예약비: 4월 6일  
무료공개특강: 4월 6일  
수강대상: 고졸(예정자)이상, 전문대, 대졸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한국편집디자인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73-3 (인성빌딩 2F)

(代) 812-1715~6  
취업인력 정보실 FAX. 814-3387

이사를 줍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슬같은 그 이사를 보배로  
케어하는 인내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낮과 밤 구별없는  
일과의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칼날같은 업무를 하는,  
그러나 자상하신 편집장 님도 만날 것입니다.  
진정 활자밥을 먹겠다는,  
그리하여 오직 한 길을 가고픈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드리겠습니다.